

[로스쿨 합격기]

마음에 품은 의지

권 우 현

- 진주 대아고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대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생



I. 삶의 여유를 만끽하며

아마도 이 글을 적는 6월 초는 대부분의 로스쿨이 기말고사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기말고사 준비 속에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로스쿨 입학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도전과 자극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아직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많은 인생이고, 감히 인생을 논하기에는 아는 것도 부족하고 경험한 것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남들과 다른 인생을 겪으며 느낀 바가 있어 고시계의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장 3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에 품은 의지가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품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란 목표가 강한 사람이며, 원칙이 있는 사람이며, 뜻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생은 순간의 시각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심지가 견고해야 하기에 <마음에 품은 의지>를 글의 제목으로 삼게 되었음을 미리 알리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II. 법조인에 대한 확고한 목표의식

어린 시절 오랜 병원생활과 많은 수술을 겪으면서 사람에게서는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남들과 “다름”이 아직은 우리나라의 의식 구조상 자연스럽게 용납되기에는 부족한 사회이고 오히려 “다름”을 통해 역차별을 당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지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싶었고 그러한 동기부여가 법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1. 첫 번째 전환 -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존재가 되고 싶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우는 학문이 점점 높아질수록 제가 치러야 하는 수술의 난이도도 점점 올라만 갔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연히 접하게 된 책이 오토타케의 [오체불만족]이었습니다. 오토타케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누군가에 희망의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2. 두 번째 전환 - 2010년 그 힘들었던 취업시장

2007년, 2008년 사법시험 2차에 불합격한 후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연거푸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서 제 자존감은 무너져 버렸고, 과연 법조인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미련 없이(!) 고시공부를 내려놓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정도 취업시장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제가 어린 시절 느꼈던 우리 사회의 인식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깨닫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당시 K 대학교 병원과 H 대학교 병원, 5대 경영 단체 중의 한 곳, 증권회사 최종면접에까지 갔었지만 “우리 회사는 건강한(?) 사람을 원합니다.”라는 면접관님의 말을 들으며 최종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3. 나의 소명 그리고 법조선교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도중 가을햇살법률사무소의 고영일 변호사님을 알게 되었고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성경공부도 하면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명륜중앙교회의 이경근 장로님께서도 저에게 “공부 좋아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한다.”면서 고시생으로의 복귀를 누구보다 반겨주셨습니다.

Ⅲ. LEET 접수에서 면접을 보기까지

1. LEET 접수

2012년 5월은 사법시험 2차를 목전에 앞두고 긴장감과 오랜 수험생활로 정신적·육체적으로 좀비(!) 상태로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차 시험 후 안일하게 보냈던 시간을 후회하며 이번에는 무엇인가라도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LEET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일간의 초인적인 능력으로 2차 시험을 끝내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LEET를 준비하기 위해 고시반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주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 언어이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에 저는 4년 치의 기출문제를 출력하여 우선 답부터 표시하였습니다. 어느 시험이든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승패를 판가름하기에 문제를 풀지 않고 답부터 읽고 문제의 지문을 읽었습니다. 원래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필요 이상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 언어이해는 기출문제를 분석하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약한 부분이 예술분야와 자연과학 분야라는 것을 파악하고 중앙도서관에서 예술 관련 서적과 자연과학서적을 빌려서 읽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책 1~2권 읽어서 점수를 올린다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저는 단지 심리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 책을 읽은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작년 언어이해에서는 제가 가장 힘들어 한 예술분야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고, 자연과학분야에서는 지문을 읽다가 집중이 안 되어 바로 문제만 보고 풀었는데 정답을 골라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언어이해는 오랜 시간의 자연스러운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도적인 목적으로 그 내용을 “소유”하기보다는 그 내용이 자연

스럽게 자신의 “존재”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에리히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에 잘 기술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3. 추리논증

저는 추리논증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면서도 도대체 추리논증은 어떻게 해야 점수를 올리는 건지 고민을 많이 했지만, 딱히 정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에 진학하여 최상위층에서 기업을 토하고 계시는 선배를 통해 추리논증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선배가 말씀하시기를 언어이해와 달리 추리논증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실력을 향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리논증에는 일정한 논리법칙이 정형적으로 적용되는데 그 법칙을 외부전문가를 통해 습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이 부분은 에리히 프롬의 ‘존재개념’이 아니라 ‘소유개념’을 통해서도 점수를 향상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리논증은 투자한 만큼 향상된다고 합니다. 추리논증에서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4. 논술

논술 역시 언어이해와 같은 공부방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체화된 독서를 통해 남들과 구별된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2012년 논술문제는 제가 좋아하는 분야였고 제 인생의 좌우명과도 비슷한 문제였습니다. 답안을 작성하면서 이지선 자매의 <지선아 사랑해>란 책과 ‘닉 부이치지’의 삶, 그리고 <오체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의 삶을 답안지에 녹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좌우명인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를 살짝 언급하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에서는 헌법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법학지식을 이용하였습니다.

5. 토익

7월에는 LEET를 준비해야 했기에 제가 토익점수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뿐이었습니다. 사법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정 점수만 있으면 되기에 그동안 저의 공부방법도 그 점수에 맞는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점수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에 처음으로 토익학원이라는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서 새벽예배를 드리고 바로 학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항상 먼저 학원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 나눠 준 음원파일을 들으며 굳어버린 귀를 뚫기 위해 노력하였고, 아련한 전설 속으로 사라진 영어단어들을 뇌세포에서 캐내기 위해 단어스터디모임에도 가입했습니다. 학원을 끝내고 다시 학교에 돌아와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며 수업내용을 반복하였고 계속하여 음원파일을 들으며 발음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날그날 나눠주는 1,000문제 가량의 기출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원선생님께서서는 자신의 수업을 따라오면 최소 4개월이나 6개월 사이에 900점 후반대에 안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수업능력과 열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점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2개월밖에 기회가 없었기에 그 화려한 점수대는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즉 토익도 (텡스는 유형을 모르기에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쏟아 부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6. 자기소개서 작성

저는 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병원생활, 법학전공의 동기, 사법시험스터디팀장, 국선도 동호회 활동, 그리고 명륜중앙교회 방송실에서 3년간 봉사활동, 또 마음고생 했던 2010년도 취업준비까지 기술하였습니다. 저를 무척이나 아껴주신 이경근 장로님께서 첨삭을 해주셨는데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일정 부분을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소개서의 요령은 '지원자는 이리이러한 사람이니 뽑으면 좋다.'가 아니라 '지원자는 이리이러한 사람이고 학교 측은 이리이러한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니 지원자와 이리이러한 부분에 들어맞는 면이 있으니 뽑으면 서로가 좋을 것 같다.'인 것 같습니다.

7. 영남대학교 면접

로스쿨 지원기간이 사법시험 2차 발표 나기 1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합격을 기대하고 있었기에 굳이 [가],[나]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조금은 건방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군의 영남대학교에만 지원하였습니다. 영남대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남대학교가 공익과 인권을 특성화 기치로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고시공부 한다고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영남대학교와 고향이

가까워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었습니다.

2차에 불합격 후 상심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게 현실이구나!'라고 계속 저를 다독이면서 면접준비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학교 선배 두회 형님이랑 후배인 재원이, 고운나라랑 면접 준비를 하면서 말하는 자세와 표정을 서로 지적해 주면서 면접 준비에 임하였습니다.

영남대의 면접은 집단토론면접이었고, 한 사람당 3번의 발언기회가 있습니다. 면접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회의 이경근 장로님께서 소소한 팁을 알려주셨는데, 그 팁들을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8. 강원도 태백 예수원

면접을 끝내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저 자신이 참 대견했습니다. 4번째로 보았던 2차 시험, 그리고 LEET, 토익점수 만들기, 2차 불합격, 그리고 면접.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2012년을 정신 놓지 않고 달려왔다는 뿌듯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물하고 싶었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이란 수도원이었습니다. 예수원에서 2박 3일 기도와 독서, 산행을 하면서 치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원을 떠나는 날 성공회 신부님을 통해 "법조인의 소명"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로스쿨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고귀한 만남이었습니다.

IV. 하나님이 보내 주신 소중한 사람들

육체적인 고통도, 정신적인 아픔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삶이 행복했던 것은 주위에 참 멋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성균관대 법대의 정신적 지주이신 고상룡 교수님, 하나님께서 매우 사랑하셔서 일찍 그분 곁으로 데려가신 故 이기용 교수님, 동네 형처럼 저의 고민을 들어주셨던 정경영 교수님과 김일환 교수님, 그리고 누구보다 허물없이 저를 대해주셨던 권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균관대 정문 앞에 있어 많은 고시생에게 도전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명륜중앙교회 정해우 목사님. 그리고 이경근 장로님과 송기정 장로님. 멋진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삶이 좌절의 절정으로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을햇살법조선교회의 고영일 변호사님, 현승학 목사님, 그리고 가을햇살 지체들 감사합니다.

2010년 취업을 준비할 때 천천히 생각하고 결정하라며 연수원월급을 통째로 보내 준 윤석환 공익법무관, '면접관은 옷 입는 센스도 보는데 우현이 너는 옷 입는 센스가 엉망이니까 정장 한 벌 맞춰줄게.' 라면서 나를 온종일 끌고 다닌 정재웅 감정평가사, 또 낙방한 나에게 어떻게 연락할지 몰라 고민과 고민을 거듭했다는 박형무 변호사와 공점순, 김진미 연수원생. 친구들이 정말 고맙다.

아직 1학기밖에 다니지 않아 다른 교수님들의 배움을 전수받지는 못했으나 영남대학교 로스쿨의 많은 교수님. 특히 대단히 박학다식한 배병일 교수님, 헌법에 관심이 많은 저였는데 더욱 강한 자극을 부여하신 박인수 교수님, 형법 판례만 외우고 있는 무미건조한 두뇌에 다양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성낙현 교수님, 그리고 매주 대법원판례공보를 통해 판례의 태도를 알려주시는 김창희 지도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고맙고 죄송한 분들은 저의 부모님과 형, 누나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형과 누나들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 부모님 같은 훌륭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V. 여전히 준비하며 노력하며 나아갈 길

인생의 많은 길이 있었겠지만 여기 영남대학교 로스쿨이란 지점까지 안착함은 큰 즐거움과 홍분이 넘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로스쿨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 중에는 저처럼 사법시험 체제에서 로스쿨체제로 방향을 전환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로스쿨제도는 상당히 인간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영남대학교 로스쿨 5기는 서로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는 분위기가 형성되

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인사하고 기출문제가 있으면 서로 먼저 “폭로(!)”하고, -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서로 실력을 검증받고 싶어 하는 멋진 분들이 많아서 참 괜 찮은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런 로스쿨은 전국에서 유일한 곳이 아닌 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멋진 곳에서 조금은 세상의 법조인과 다른 법조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이 곳 영남대학교 로스쿨 원생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실력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품은 의지가 강하다면 삶의 행복을 즐 길 자세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 기에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노력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6기를 준비하 는 모든 수험생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